

2007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믿는이들

메시지 32

그들의 현재—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 안에 체험하고 누림

성경: 히 4:16, 고후 1:12, 10:13-14, 12:7-10, 13:3-4, 14

- I. 은혜는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그 영으로서 우리 속으로 전달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다—요 1:16-17, 히 4:16, 고후 1:12, 13:14, 롬 5:17, 21, 고전 15:10, 참조 갈 2:20.
- A. 생명나무를 먹는 것, 즉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누릴수록 예수님의 순수한 증거를 위해 교회 생활의 내용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계 2:7.
- B.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얻는 것이다. 빌립보서에 있는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를 추구하여 그분을 얻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1:20-21, 2:2, 5, 3:7-14, 4:13.
1.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빌 2:2.
 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3:12-14.
 3.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눅 10:41 하-42.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시 27:4.
- C. 그리스도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여 몸의 머리가신 그분을 붙잡고 존중해야 한다—계 2:4, 골 2:19, 1:18, 뱀전 1:8, 2:7.
- D. 그리스도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현재의 회복을 위해 그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유지하고 최선의 헌신으로 유지해야 한다—시 43:4, 73:25, 110:3, 창 12:8, 고후 5:14-15, 롬 14:7-9.
- E. 그리스도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얻으려면 우리는 의지할 것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후 13:3-4, 아 8:5-6, 찬송가 217 장.
1.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하고, 우리가 스스로는 전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한 가지’를 위해 우리의 실패를 주권적으로 허락하신다—눅 18:22, 27, 찬송가 423 장.
 2. 한 면으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한 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한다—고후 12:7-10, 빌 3:3.

3.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 아무 것도 할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요 15:5, 빌 4:13.
4.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머무시고, 사람 안에 태어나시고, 사람과 하나 되시기 위해 방문하시는 것이다. 교회의 의무는 주로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남편인 그분께 열어 드려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분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눅 1:28, 30, 35-38, 요 1:16, 참조 계 12:5.
5.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서 우리의 생명 공급과 힘과 모든 것이 되시어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를 살아 내고 표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은혜의 능력, 은혜의 힘, 은혜의 생명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지체들 서로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올바를 수 있다—창 6:8, 롬 5:17, 21, 참조 고후 3:3, 8-9.
6.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히브리어로 엘샤다이)으로서, 믿는이들을 온전케 하는 요소와 요인이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더해지도록, 그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행하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분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분이시다—벧전 5:10, 창 17:1, 빌 1:19-21 상.
 - a. ‘엘샤다이’라는 신성한 칭호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복합된 것이다. ‘엘’은 ‘전능자’를 의미하고, ‘샤다이’는 히브리어로 ‘유방’이나 ‘젖통’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 b.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분의 부름 받은 이들에게 양육자, 힘을 주시는 분, 넘치는 공급을 하시는 분이 되시는, 젖통을 가지신 전능자,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전능자이시다—갈 3:2, 5, 요 1:16.
 - c.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은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종결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새 창조를 위해 우리의 새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빌 1:19, 골 2:11, 갈 5:24, 벧전 1:3, 고후 5:17, 빌 3:3.
- F. 그리스도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이기는 분이신 그분을 누려, 어린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과 죽기까지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비난하는 비난자를 이겨야 한다—계 3:21, 12:10-11, 2:10-11, 참조 미 5:7-8, 7:18-20.

II. 우리는 시온 산에 내리는 혈몬의 이슬로 예표된, 하나의 진정한 터 위에 있는 교회 생활 안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시 133.

- A. 이슬은 내리고, 신선하게 하고, 적시고, 스며드는 생명의 은혜(벧전 3:7),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삼일 하나님(고후 13:14, 참조 애 3:22-24)을 상징한다.
 1. 예표론에서 혈몬은 우주 안에 가장 높은 곳인 하늘들을 상징한다—참조 엡 1:3, 마 17:1-2.
 2. 시온 산은 지방 교회들을 예표한다. 하나의 시온, 한 몸인 한 교회가 있지만, 많은 산들, 많은 지방 교회들이 있다—계 1:11.
 3. 은혜로 우리는 시온 산에서 받아들여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행 20:32, 고후 1:12, 12:7-9.
 - a. 교회 생활 안에서는 모든 믿는이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행 4:33.
 - b. 그러한 유기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믿는이들이 받는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11:23.
- B. 그 영의 기름 바름과 은혜의 공급은 우리가 하나 안에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시 133:2-3, 엡 4:3, 참조 시 110:3.

III. 우리는 몸의 생활 안에서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앎으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 은혜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된다—고후 10:13-14, 롬 5:21.

- A.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을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몸 안에 두셨다—고전 12:18.
1. 머리께서 우리를 몸 안에서 우리의 특유한 곳에 두시고 우리의 특유한 기능을 알려 주셨다—롬 12:4, 고전 12:15-17.
 2.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각자에게는 자신의 위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3. 그러한 정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므로 각 지체가 다 필요하다—19-22 절.
 4. 각 지체에게는 명확한 위치, 명확한 임무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특별한 몫이 있다.
 5. 각 지체에게는 고유의 특성이 있고, 각자에게는 고유의 역량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각 지체의 장소나 위치나 사역을 조성한다—롬 12:4-8.
- B. 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인정하고 그 분량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엡 4:7, 16.
1.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분량에 기꺼이 제한받아야 한다—롬 12:3, 6.
 2.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자마자 우리는 머리의 권위를 벗어나고 기름바름을 벗어나게 된다.
 3. 우리의 분량을 벗어날 때 우리는 몸의 질서를 해친다.
 4.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의 합당한 질서를 무효화하는 것이다—3 절.
- C. 바울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제한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후 10:13.
1. 우리가 우리의 일이나 체험이나 주님에 대한 누림에 대해 증언할 때 우리는 반드시 분량 안에서, 즉 어떤 한계 안에서 증언해야 한다.
 2. 우리는 일이 확산되기를 기대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제한없이 확산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13-15 절.
 - a.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일을 확산한다면 항상 어떤 제한이 있을 것이다—참조 2:12-14.
 - b. 내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일을 어떤 정도까지만 확산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우리가 그 이상으로 일을 확산할 때 내적으로 평강이 없다.
 - c. 외적으로, 주님께서 환경에서 어떤 일을 일으켜 일의 확산을 제한하실 수도 있다. 환경은 우리가 어떤 한계선을 넘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참조 롬 15:24.
 - d. 교회의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을 그만큼만 정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지나치게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12:3-4, 6 상.
- IV. 교회가 하락한 어두운 시대에 지방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추구하는 믿는이들이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계 1:4.
- V. 주 예수님의 은혜는 신약 시대에 그분의 믿는이들에게 분배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확대와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결하시고 연합시키시는 그분의 큰 기쁨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22:21.